

환율안정 ‘4자 협의체’ 가동... ‘국민연금 환헤지’ 논의

“연금 수익성-외환안정 조화”

국민 노후자산에 우려 시선도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공조 체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4자 협의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참여하

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 노후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3.6원 낮은 1472.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줄이다가 주간 거래 마감 무렵에는 1477.3원까지 올랐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장 초반 소내수하던 외국인 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7.20p(0.19%) 내린 3846.0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4298억원을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에서 개발한 신품종 및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GS슈퍼 560여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남 신품종·우수 농산물, 전국 GS슈퍼 판매전 성황

전남농업기술원, 새청무쌀·해금 키위 등 집중 홍보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에서 개발한 신품종 및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GS슈퍼 560여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기획전을 진행하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과 지역 특화작목 등을 전국의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 판매함으로써 전남 개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판매전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새청무 쌀, 해금 키위를 비롯해 각 지역의 제철 과일과 채소인 추황배, 귀리, 샐러드 상추, 배추, 고구마 등이 참여했다.

특히 감장철을 맞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및 음악을 활용한 홍보가 이뤄졌으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새청무쌀

을 제공해 식미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의견은 향후 품종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윤철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전국적인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 채널을 보유한 GS리테일과 협업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품종과 상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긴밀히 협력하여 전남 농산물의 새로운 히트 상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국전력은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현대제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국가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속도’

현대제철·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협약

한국전력은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현대제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국가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급증하는 송전망 건설 수요에 대비해 철탑 원자재 공급·제작·납품 간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과 협동조합은 철탑 원자재 공급과 제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전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력망 건설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한 세 기관은 차세대 송전철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에 의해 2038년까지 송전망 건설 물량은 약 4700km, 철탑 자재는 약 7

만t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탑 기자재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핵심 품목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대제철은 연간 240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철강사이며, 협동조합은 국내 총 6개 철탑 제작사를 포함한 60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어 공급 안정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제철 및 협동조합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원자재 수급현황 점검, 제작·납품 일정 등을 종합 관리하는 강화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호곤 한전 송변전건설담당장은 “국가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이고, 철탑 기자재의 적기 공급은 그 첫 단추”라며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산업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aT,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 할인

내달 15일까지 931개 매장에서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다음달 15일까지 지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1회 최대 3만원까지 구매 금액을 지원하는 특별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가 소득향상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는 공모로 선정된 GS리테일·한살림·두레생협 등 3개 유통업체의 전국 931개 매장에서 두부, 두유, 국수, 과자 등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당 3000원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인 1회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며,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된다.

aT는 이번 혜택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제품의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매장별 행사 기간, 행사품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유통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중앙회, 자립경영 어려운 농축협 합병 권고

농축협 규모화 추진...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농협은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에는 조합원 수, 배당 어려움, 경영 규모 등이 포함되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 경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는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

된다.

이 법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예방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이 진행 중이다.

농협은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도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지급되는 기본 자금을 늘리고, 합병 손실 보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합병의 결 추진 비용도 현실화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자동차사고 유자녀 돕기 멘토링

6개월간 AI 기반 학습역량 강화 교육·진로 컨설팅

금호타이어는 자동차손해배상전용원(이하 자배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로서 유자녀를 대상으로 미래역량강화 멘토링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가정에서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외상 후 정서적 불안 등을 경험하는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학습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돕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부터 6개월간 자배원에서 선발한 20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AI 활용 방안 콘텐츠를 제공한다. AI 활용 학습계획 설계 및 질문법 트레이닝, 토론-글쓰기 코칭 등 6회 커리큘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는 진로 발달 검사, 개인 학습유형 파악을 통한 진로 컨설팅 등의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사고 유자녀를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해 그동안 200여명의 청소년들



을 지원했다”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멘토링을 비롯해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후원 및 운영하며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